



여성조합원, 청소부 전환배치??

외주화와 여성 조합원 탄압, 동시에 실시할 의도

지난 4월 12일에 나주공장에서는 불법적인 전환배치가 자행됐다.

하지만 100여명의 용역강패를 동원한 10일에 있었던 설비반출사건 이후, 12일부터 전면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14일 오후 1시경에 백두원 파트장이 전환배치에 대해 설명했다.

AF3 부서의 다이컷 검사인원 9명 중에서 기계보조로 3명, 창고로 2명을 배치한다는 백 파트장의 해괴한 말이 이어졌다.

창고로의 전환배치 인원은 조합의 최경아 여성부 차

장과 율동패 이승민 조합원을 지목했다.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백 파트장은 창고에 들어오는 점보 및 포장시 나무 파렛트에서 떨어지는 이물질 제거, 부자재 정리정돈, 그리고 메디컬 부서 입구쪽 천정에서 물 새어나는 곳까지 청소를 하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했다.

검사자에게 청소부나 다름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여성 조합원 탄압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성도하는 우리 조합원들에



△ 이승민 조합원과 최경아 여성부 차장

게 백 파트장은 작업지시 불이행을 운운하며 인사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말을 하며 조롱했다.

AF3 부서는 조만간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예정이다.

따라서 검사인원이 더 충원해야할 실정이다.

여성 조합원 2명을 창고로 빼놓고 외주업체 2명의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사인원의 외주화와 함께 여성 조합원을 탄압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 조합원 비용절감과 탄압말고 경영 합리화 시행해야

타 사업장에 비해 턱없이 인원도 많고 월급도 훨씬 많은 사무직군들이 준비한 우리 회사의 실정에서 사무직군들이야말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사원의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들인가?

검사인원 외주화한다고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겠는

가? 박원용 본부장을 고용하면서 얼마의 돈을 주고 있으며 나주와 화성의 40여명의 용역강패들의 주머니에 얼마의 돈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조합도 제안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나주공장 GPC 부서의 여성 비조합원 역시, 청소하는 일을 시키고 그 자리를 외주업체 사원들로 변경하면 가뜰이나 이익을

못내고 매출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GPC 부서의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GPC 비조합원들 역시 검사 인원들이다. 머지않아 조합의 최경아 차장과 이승민 조합원이 당한 같은 수모를 당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조합원들이야 노동조합의 힘으로 해쳐 나가겠지만 하소연 할

곳 없는 비조합원들은 회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있기에 노동조합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하지만, 비조합원들은 그 누구도 막아줄 수도 막아주지도 못하고 막말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달리 뽕족한 방법이 있는가?

조합원들 중징계... 비조합원들 감싸주기

회사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면서 비조합원들에겐 미끼를, 조합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나주는 8차, 화성은 4차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 아무리 회사의 잣대로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단행한 징계지만, 도를 넘어서 아예 숨통을 조여려고 하고 있다.

나주 8차 징계위원회에서 황종진 문체부장이 6개월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징계처분이 남발되고 있다.

화성 4차 징계위원회에서도 말도 안되는 중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행위 최고 선봉 김명후는 회사 활보

하지만,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위협, 폭언, 폭력, 성희롱, 공금횡령, 암웨이 상품 강매, 조합활동 방해, 용역강패들의 만행,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중대사안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불법행위의 최선봉에 있는 김명후가 지금은 생산팀장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나긴 했다.

하지만, 김명후는 직권 남용, 인사권 남용, 공금횡령, 암웨이 상품 강매, 프랭클린 다이어리 강매 등의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후는 아직도 회사에 슬렁슬렁 다니고, 딱딱딱딱 월급 받으면서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노조탄압의 선봉에서 날뛰고 있다.



또한 황종진 문체부장에게 헤드락을 걸고 폭력을 행사한 김상복 팀장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회사 보안보다 먼저 기본을 지켜라!!

4월 14일 화성공장 점심 식사 시간은 용역 강패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인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시간에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화성공장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다 식사를 하러 나온 사원들까지 모두 허기진 배를 달래며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늦게 온 용역 강패들이 난데없이 줄의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며 자신들의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기 시작하였다.

이에 몇몇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식

사를 해야지, 서 있는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하여 밥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자, 항상 우리가 먼저 먹었는데, 왜 그러냐는 망발을 내뱉으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생도 알고 있을 것이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절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또한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기본 지키기를 강조하는 한국쓰리엠에서 자칭 회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는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켜져야 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본 지키기란 한국쓰리엠에서 근무하는 사원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한국쓰리엠이란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용역 강패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험악한 인상과 힘을 앞장세워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한 것이다.

게다가 기본적인 것을 지키라는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항의에 자신들의 분을 참지 못하고, 폭언과 욕설을 난무하다 못해 무전기로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에

게까지 연락하여 모두 불러들이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캠코더와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식당 입구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 식사를 하라는 확대간부들의 얼굴만 촬영하고 돌아갔다. 조합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징계 건수를 올려보겠다는 회사의 검은 속셈이 배후에 있었음이 눈에 훤히하다.

조합원들과 사원들의 화기애애해야 할 식사 분위기를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는 용역 강패들을 앞세워 폭언과 욕설을 남발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사를 방해한 죄는 지탄받게 마땅할 것이다.